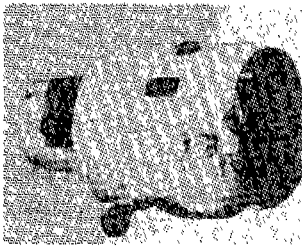


F-16 부품 공급

만도기계, 美 록히드사에

만도기계가 오는 10월부터 F-16 전투기용 고출력 전장품을 생산, 미국의 록히드사에 공급한다.



F-16항공기용 초정밀 전장품인 정속구동장치와 발전기 결합체

만도기계는 세계최대의 항공기용 전장품생산공급업체인 미국 선드스트랜드사와 기술협력, F-16전투기용 고출력초정밀전장품인 주발전기, 정속구동장치 발전기조정기, 변류기등 4개품목을 10월부터 생산해 미국 록히드사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가 생산 공급할 F-16전장품은 국방부에서 록히드사와 추진중인 한국형 차세대전투기 구매사업과 관련, 절충교역의 일환으로 국방부 조달본부의 지원아래 이루어진 사업이다.

이로써 만도기계는 국내 최초로 항공기용 전장품을 생산하게 돼 항공기용 공조시스템 및 제동

시스템분야등으로의 사업확장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됐다.

이 회사는 그간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자동차부품분야에서 축적해온 기술력을 활용할수 있는 항공기부품사업에 착수키로 하고 이의 구체적 방안을 수립 실행해왔다.

수직이착륙기사업 참여

삼성항공, 美 MI사와 기술제휴

삼성항공이 미국 MI사와 공동으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4인승 수직이착륙기를 개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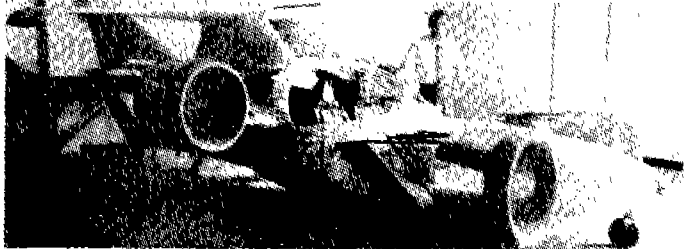
「스카이 카」로 불리는 이 항공기는 자동차와 항공기의 기능을 결합시킨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삼성항공은 2005년에 세계적으로 연간 10만대, 2백억달러 규모의 잠재시장을 가질 것으로 분석했다.

신소재 복합재로 만드는 이 항공기는 반경 10m의 좁은 공간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고 9인승 미니버스 크기에 연료소모도 헬기의 4분의 1, 경항공기의 절반밖에 들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속도는 헬기의 2배이상인 시속 5백70km를 낼 수 있다.

삼성항공과 MI사는 2월 8일 수직 이착륙기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2개월간 사업화 가능성을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4인승 수직이착륙기 및 로터리 엔진의 공동개발과 사업화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미국의 모험기업인 MI사는 그동안 자체 기술력으로 스카이 카의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이 모델에 적합한 엔진개발 및 생산을 추진해왔으나 현재까지 3천5백만달러를 투자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을 겪게 돼 이번에 삼성항공과 손을 잡게 됐다.

삼성항공과 MI사가 공동 개발기로 협의한 4인승 수직이착륙기 스카이카의 모델



4인승 수직이착륙기 스카이카

성능개량 끝내

대한항공 기념식 거행 창정비 1300대 기록

대한항공이 태평양지역 미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의 첨단 전자분야 성능을 향상시키는 다단계 성능개선사업 최종호기를 출고했다.

이 전투기의 출고로 대한항공의 미공군 항공기 창정비 1천3백대를 돌파하는 기록도 달성했다.

대한항공은 2월 22일 오전 김해공장에서 沈利澤 부사장을 비롯해 미8군의 벨스 러닝 장군 등 관계인사 1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미공군의 다단계 성능개선 사업은 F15 전투기의 공대공전투능력 및 전자계통성능향상, 첨단미사일장착을 위한 기골과 다목적 임무수행을 위한 계통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F15는 수호이 27, 미그29, 31보다 월등한 전투능력을 지니게 된다.

미일사 공동개발

GE와 IHJ간에 소형 제트엔진

일본의 이시카와지마하리마 중공업(IHJ)과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GE)은 소형 제트 엔진 공동개발계획을 협의중이라고 IHJ대변인이 밝혔다.

GE는 현재 50인승의 캐나다에

어 RJ기 제작에 공급하고 있는 9천 파운드 엔진을 약 1만4천파운드 급으로 개량하는 사업에 IHJ를 동참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IHJ대변인은 그러나 4백억엔에 달하는 전체 투자분 가운데 IHJ가 25%를 부담할 것이라고 말한 니혼게이자이 신문 보도를 부인하면서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 엔진은 오는 98년 첫 비행에 나서게 될 캐나다에어 RJ기의 80인승 개량형에 장착될 예정이다.

산학장학생제 실시

금년부터 2,3학년 16명 선발 지급

대한항공은 2~3학년에 재학중인 대학생들에게 장학금과 학업보조금을 지원하고 졸업후 직원으로 채용하는 산학장학생제도를 올해부터 실시기로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국내 항공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장학생제도를 운영키로 하고 2~3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비전액과 매학기당 학업보조금 50만원, 국내선 항공권을 등을 제공하며 방학기간 중에는 특별영어회화 강좌도 열어준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서울 중구 서소문동 KAL 빌딩에서 전국 대학의 항공산업 관련학과 2~3학년 재학생 16명에게 장학

증서 및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내년부터는 장학생을 3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해외업계 단신

각업계 감원단행

◎ 노드롭사

미 국방부의 신형 공격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취소에 따라 이에 관련된 1650명의 인원을 감축할 예정이다.

그루만사를 합병한 바 있는 노드롭사는 지난해 종업원 총수가 5만3천명에 달했으나 경영합리화 추구를 위한 자구 노력으로 현재 그 규모가 4만2천명선으로 줄었다.

◎ 보잉사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주력 제트여객기 2개기종의 생산 감축을 발표했다.

전체 종업원의 6%에 해당하는 7천명 가량의 인원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 록히드사

향후 수년내 2만명선의 감원조치를 단행할 전망이다.

◎ 컨티넨탈 항공사

채산성이 약한 항공노선 폐쇄, 보전을 위해 미 전국적으로 10%의 종업원을 감축할 예정이다.

약 4천명선으로 집계되는 이번 감원조치는 조기은퇴, 권고사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단행될 예정이다.

헬기정비센터 설립 벨 헬리콥터, 대만에

벨 헬리콥터는 대만의 에어 아시아와 합작으로 대만에 아시아-태평양 헬기정비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항공 당국자들이 밝혔다.

이들은 벨사의 웹 조이너 사장이 이달 중순 대만을 방문, 에어 아시아측과 계획의 세부 내용에 대해 협의할 것이며 양사가 이달안에 합작계약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벨 헬리콥터사는 지상 공격용 중장비 헬기인 AH-1W 코브라를 제작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에 정비 센터를 두고 있다.

베트남전 당시 아시아 최대의 미군용기 정비소였던 에어 아시아는 작년 12월 대만 에어로스페이스사의 자회사가 됐으며 지난 94년에 1천3백만달러의 수입을 올렸고 금년에는 2천3백만달러의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MD-11 생산중단 신규주문 격감

MD사는 자사의 최대 여객기인 MD-11의 내년도 생산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MD가 이같이 결정한것은 이 대형여객기의 주문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내년도 MD-11의 신규주문이 10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MD는 이 결정이 공장폐쇄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이는 수천명 종업원의 일시 해고 및 MD-11 프로그램의 불투명한 장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MD-11은 현재 캘리포니아주 롱비치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롱비치 공장의 1만명 종업원중 몇명이 감원될지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봄바디어사, 대규모투자 호화장거리기 개발추진

캐나다의 봄바디어사는 초호화 장거리항공기 시장을 겨냥해 독점해온 걸프스트림, 에어로스페이스에 도전장을 냈다.

봄바디어는 8억달러를 투자해, 논스톱으로 뉴욕에서 북경까지 날아갈수있는 고급여객기 개발을 추진중이다. 이 초호화여객기는 회의용탁자, 침대등을 구비한 날아다니는 호텔로 대기업의 경영자들을 판매대상으로 삼고 있다.

북미지역에 교두보

인도, 미국에 조립공장
N250판매위해 진출

인도네시아가 자체개발한 N-

250 항공기의 판매를 위한 홍보 전략과 함께 미국내에 조립라인을 설치하여 북미지역 시장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1976년 누산타라 항공사를 설립하여 하비비에 과학·기술장관이 직접 사장직을 맡고있는 인도네시아는 스페인 CASA 및 프랑스 슈퍼푸마헬기사와 기술 제휴하여 CN-212, CN-235 300여대를 합작생산했다. 60~80인승급 여객기인 N-250은 지난 89년부터 6억5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개발한 야심작으로 96년에 FAA 감항증명을 획득할 예정이며 양산은 97년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등에 20여대를 판매하였고 태국에서 쌀을 수입하는 댓가로 항공기 판매교섭을 벌이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에는 프로톤 승용차 합작생산을 빌미로 구매를 증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에 N-250 항공기 조립공장을 설립키 위해 오레곤, 아리조나, 알라바마, 조지아주등 4개지역을 대상으로 최종 후보지를 모색중에 있으며 유럽 지역에도 합작조립공장건설을 추진중에 있다.

미국내 조립공장 건설에 대해 보잉사나 제너럴일렉트릭사가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유럽의 에어버스사는 항공기의 성능테스트와 안전성 검사를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